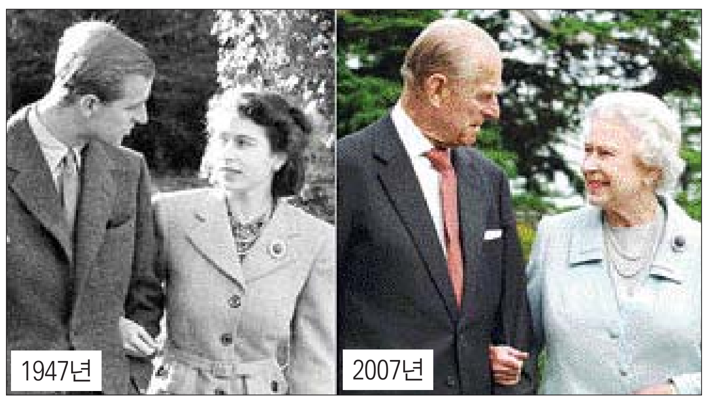
1947년 2007년

엘리자베스 여왕 '결혼 60주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남편 필립공이 19일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혼식을 치렀다.

1947년 11월 20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결혼식을 치른 여왕과 필립공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돼 다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나란히 들어섰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역사상 결혼 60주년 기념 다이아몬드혼식을 갖는 첫 번째 군주가 됐다. 여왕은 21세 때 5세 연상인 해군장교 필립공과 결혼해 지금껏 해로하고 있다.

다이아몬드혼식은 왕실의 사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듯 폭죽이나 팡파르 음악, 의장대 퍼레이드 없이 조촐하지만 위엄있게 치러졌다. 60년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여왕은 이날 하얀 정장 투피스에 하얀 모자를 맞춰 입었다.

다이아몬드혼식에는 고든 브라운 총리, 마거릿 대처와 존 메이저 전 총리, 찰스 왕세자 부부를 비롯한 왕실 가족 30명 등 하객 2천여명이 참석했다. 여왕 부부와 같은 날 결혼한 10쌍의 다른 영국인 부부들도 초청받았다.

"세계적 스타 된 내 아들 너무 자랑스럽다"

고향 방문 최경주 선수 부모 최병선·서실례씨

"오늘 저녁에는 경주가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전복, 개고기를 맛있게 해서, 해외에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축난 체력을 보충해 줘야겠습니다" 〈관련기사 22면〉

20일 고향 완도군의 환영행사 참석차 1년 4개월여 만에 금의환향한 아들 최경주(38·나이키골프) 선수를 맞는 아버지 최병선(64)씨와 어머니 서실례(58)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저녁 자신들이 손수 차릴 만찬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머금었다.

"경주가 완도의 자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병선씨는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몰랐다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특히 아들로부터 로렉스 시계를 선물받고 "이런 좋은 시계 봤느냐"며 "경주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줬다"며 자랑했다.

평소에도 효자로 소문난 최 선수는 이번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아버지에게 마음먹고 명품 시계를 선물했고, 아들의 마음씀씀이에 아버지는 어깨춤이라도 덩실거릴듯 기뻐했다.

하지만 어머니 서실례씨는 조금은 마음이 좋지 않은 듯 했다.

아버지에게만 선물을 하고 어머니 선물이 없었던 것. 서 씨는 겉으로는 "그런거 상관없고,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있냐"고 말했지만 내심 서운한 표정이 역력했다.

최 씨는 "경주가 어디 어머니 선물을 빠뜨릴 자식입니까. 며칠 있으면 어머니 생일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 아마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귀띔했다.

그제서야 어머니 서 씨도 "우리 아들이 그럼 그렇지"하고 파안대소했다.

며느리 김현정(36)씨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완도에 오지 못하고 서울에 머물러 있어 건강이 걱정된다는 서 씨는 "내가 옆에 있으면 좋은 음식 해 먹여 손주 손녀 다 낫게 할텐데"라며 아쉬워 했다.

최 씨는 "우리 경주 덕분에 내가 이렇게 완도군을 돌며 카퍼레이드를 다 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아들 자랑을 했다.

서 씨는 어렸을 적부터 무언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 오늘날 이렇게 큰 인물이 됐다면서 대회가 시작되기 전이나 끝나면 반드시 전화로 동정을 알려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완도수산고 2년때 서울 한서고로 전학가서 홀로 생활 할때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 가장 마음이 아팠다는 최 씨는 "경주가 배를 타고 김이나 미역을 채취하러 나갈 때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자신의 인생에 불빛을 찾으며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 너무 대견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탤런트 이승연, 내달 28일 결혼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이승연(39)이 한 살 연하의 사업가 김모 씨와 12월28일 결혼한다.

이승연 측은 "예비 신랑은 패션을 전공한 사업가로 승연 씨와 2년 여 교제해왔다. 두 사람이 최근 결혼 날짜를 12월28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울이 아닌 교외에서 결혼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형문화재 '진도 씻김굿' 보유자 박병천옹 별세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 보유자 박병천 선생이 20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1932년 진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1년 부터 진도에서 이어져 내려온 '남도 들노래' '강강수월래' 등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 대통령상 등을 휩쓸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1977년 '진도 다시래기'(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 초상집에서 열리는 민속놀이)를 발굴한 고인은 1978년부터는 망자(亡者)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을 풀어주고 편안한 세계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전통굿인 '진도 씻김굿'을 공연하기 시작했다.

1980년 진도 씻김굿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고인은 이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악장 및 예술감독, 사단법인 민속놀이 진흥회 이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투병중에도 공연과 강의를 멈추지 않았다. 1999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상했으며 음반으로 '박병천의 구음 다스림', '진도 씻김' 등이 있다.

유족으로는 장남 박환영(부산대 국악과 교수)씨 등 3남7녀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5일장을 지낸 뒤 24일 오전 10시 진도 철마광장에서 발인제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2-3010-22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연극 의상 디자인 꼭 해보고 싶어요"

국제의류학회 패션 디자인경진대회 ETI상 동신대 김희연 씨

어릴 적 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김희연(23·동신대 의상디자인학과 4년)씨는 졸업을 앞두고 멋진 선물을 받았다.

김 씨는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국제의류학회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깃털 장식을 한 빠니에 드레스'라는 작품으로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상 가운데 두번째 큰 상인 ETI (Eden Travel International Award)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원래 학과 패션쇼에서 발표했던 작품으로 루이비통에서 따온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이다. 김 씨는 "한국적인 느낌과 서양적인 느낌이 어우러져 인체의 미를 표현한 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가 무엇보다 행복한 건 부상으로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인턴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김 씨는 내년 초 세계 최고의 직물 디자이너로 꼽히는 잔드라 로데스 아래서 2주간 패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제가 욕심이 많아 디자인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선진 패션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배울겁니다."

2005년 만화 캐릭터 의상을 디자인하는 아바타 코스프레 경진대회에 입상하기도 한 김 씨는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꿈'을 간직하고 있다.

"영화나 연극의 의상 디자인은 꼭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제가 복식사에 관심이 많은데 얼마전에 봤던 영화 '마리앙뜨와네트'의 의상은 참 인상적이더군요. 주인공들이 영화 속에서 제가 만든 멋진 의상을 입고 출연하는 걸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김 씨는 "이번 경진 대회에 참가하도록 격려해 주신 최미성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4회 고정희상'에 화가 윤석남씨 선정

화가 윤석남(68)씨가 20일 ㈔또 하나의 문화가 운영하는 제4회 고정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인이자 여성운동가였던 해남 출신 고(故) 고정희씨를 기리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이 상은 페미니즘의 실현에 기여한 여성에게 격년으로 수여된다.

윤씨는 페미니스트 화가 1세대로서 여성과 어머니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이 인정돼 수상자로 뽑혔다.

김장훈, 아산상 상금 포함 3억원 또 기부

"이 상은 제가 잘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잠시 지쳐 있었는데 더 열정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가수 김장훈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주는 제19회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뒤 받은 상금 5천만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아산교육연구관 1층 강당에서 받은 5천만 원의 상금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치료비가 없는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고(故) 정주영 회장이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에 관심이 컸던 만큼 그 뜻을 받들기로 한 것.

그는 또 가을과 겨울 행사와 업소를 발로 뛰며 벌어들인 돈 2억5천만원을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과학발전 기금, 보육시설 새 소망의 집, 그가 돕는 소년가장의 대학 학자금 통장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다.

가수 문희준 20일 전역

H.O.T 멤버 출신인 가수 문희준(29)이 20일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2년 만에 제대했다. 전날부터 진을 친 팬들 300여명은 문희준의 제대를 축하했다.

문희준은 "제대하는 꿈을 10번도 넘게 꿨다"면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군인 티'를 벗고 오랜만에 춤 연습을 하려니 힘들다"고 여유로운 농담도 던졌다.

〈정후식 기자〉〈서승원 기자〉〈홍행기 기자〉〈최현배 기자〉〈최경호 기자〉

본사 정후식·서승원·홍행기·최경호·최현배 기자

신문기획·편집부문 '올해의 기자상' 수상

광주·전남기자협 선정

광주일보 정후식(정치부)·홍행기(사회2부)·최경호(경제부)·최현배(사진부) 기자와 서승원(편집부) 기자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07 올해의 기자상' 신문통신기획부문과 신문편집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 기자 등 4명은 신문기획부문에서 '온누리안(국제결혼 다문화가정) 리포트'로, 서 기자는 신문편집부문에서 '체전 100배 즐기기'로 각각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KBC광주방송의 '전남무역 파산위기'라는 보도가 대상을 받는 등 모두 20점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예술의 전당' 웨딩홀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신인재(광주 동부경찰서 교통과)씨 장남 **영원**(삼성전자 연구원)군 **김재희**(㈜청해레미콘 부사장)씨 장녀 **주영**(해룡초교 교사)양=25일(일) 낮 12시20분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조익준씨 장남 **상원**(서울유통 대표)군 **서영동**(전 전남도 축정과장)씨 차녀 **은성**(SCA 서울사무소 교육담당간호사)양=25일(일) 오후 3시 서울 웨딩의 전당 2층. 피로연 23일(금) 오후 5시 상무리츠컨벤션 2층.

▲김성곤(광주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씨 막내 **제근**(한국광기술원)군 **박현성**씨 막내 **정희**양=24일(토) 오후 1시10분 그랑시아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동창·동문회

▲**하남초교 39회 동창회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우리 가든.

▲**동신대 총동창회 창립총회**=24일(토)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연회장. 061-330-3017

▲**북성중 제 26회 동창회(회장 이형선) 월례회**=26일(월) 오후 7시 영미오리탕. 527-0249

종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이화회(회장 이보희) 월례회**=22일(목) 오전 11시30분 지원 회의실. 225-5631

향우회

▲**재광 영광군 향우회 임시총회**=24일(토) 오전 10시30분 무등산 증심사 입구 주차장. 010-2288-5119

모임

▲**재광 순천 중·고 테니스회 월례대회**=24(토) 오후 3시 동신고 테니스 코트. 016-652-8040, 016-9877-3972

모집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 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412-3201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직원 모집**=만 20세 이상 여성 사무·경리직 모집. 524-1860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환금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230-4246~9

▲**광주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정신 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부음

▲**서명엽**씨 별세 **이태운**(광주 고법원장)·**태웅**(전 광양 서초교 교장)씨 모친상 **전효숙**(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씨 시모상=발인 22일(목) 광양 가야장례식장 1호실. 061-763-4444

▲**박병천**(진도 씻김굿 예능보유자·대불대 석좌교수)씨 별세 **환영**(부산대 국악과 교수)씨 부친상=발인 23일(금)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02-3010-2230

▲**안동영**(독립유공자)씨 별세 **정덕**(리드정보기술 전무)씨 부친상 **김호영**(고려대 공대 교수)·**성해용**(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씨 빙부상=발인 21일(수)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010-8908-0388